

# '한국문화가치대상' 우수상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도시로 확장 이전

전주 창업지원 확대 · 연구소 기업 발굴 · 투자 · 기술개발 공동 협력 등 탄력

전북도,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수상 쾌거  
문화·관광 정책·전통·문화유산 보존 등 높이 평가받아

전북도가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고장으로 또 한 번 인정받았다. 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문화가치연구회(이사장 김명근, 전 문화관광부장관)가 실시한 '제3회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3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문화가치대상'은 지역마다 특색있는 우수 문화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실행·확산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한국 문화가치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정책분야 전문 매니페스토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화가치연구회가 시상하는 상이다.

도는 특화된 문화·관광 정책으로 지역민의 문화가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 대표관광지 육성, 숨겨진 언택트 관광지 발굴 등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및 전북관광 브랜드 구축에 노력해 왔다. 특히,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 전라도 천년사 편찬 등 전통·문화유산 분야에서 기여한 부분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운여인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민들이 일상에서 가까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대표도서관 건립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

고, 관광 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게 여행체험, 휴양힐링 산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데 주력하여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가야유적 정비, 후백제 유적 고증, 전라감영복원, 국립문화재 연구소 설립, 전라도천년사 편찬 등으로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라유학진흥원과 세계사예비엔날레 전시관 건립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를 통해 도민의 자존의식을 고취하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전북센터)'가 오는 19일 전주 혁신도시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로 확장 이전한다. 설립 7년차를 맞은 전북센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창업수요에 대응하고, 도내 혁신창업 허브로서 역할을 행을 위한 인프라 확보를 위해 확장 이전한다. 이전 공간은 약 20개사 규모의 집중보육실, 온라인 화상 회의실, 시제품제작실, 대·중·소 회의실, 오픈카페 라운지 등으로 구성되고 '테크비즈니스' 공용 공간을 활용해 대규모 창업 프로그램 운영도 가능하다. 건물 임차료도 이전 대비 연간 1.4억 원정도 절감돼 비용 대비 효율성도 높아 졌다. 또한, 정부의 제2벤처 붐 확산 전략과 함께, 전북도는 도내 25개 창업지원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2020년 말 기술창업조례를 신설, 전북센터를 허브로 전주 창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센터는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의 이전으로 전주시에 인접해 서부권뿐만 아니라, 동부권 시·군의 접근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또한, 반경 1km 이내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포진, 전북센터 사업에 참여하는 파트너 접근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연구개발특구가 추진하는 연구소 기업 발굴, 투자 및 기술개발 공동 협력에도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테크노파크, 탄소진흥원 등 전략산업분야 핵심 기관과의 인접성이 높고, (주)효성이 무상 제공해 전북센터가 독자 운영하는 '미래기술혁신센터'도 10분 이내에 있어, 기술기반 청년창업자 밀착 관리도 가능해 진다. 더불어, 테크비즈니스센터 4, 5층을 전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6층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협력 운영하는 '금융혁신센터'를 구축해 창업자가 활용 가능한 금융데이터를 적시에 제공, 전북도와 추진해 온 금융혁신 벤처창업 육성사업과 시너지를 높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북센터가 운영하는 '전북청년허브센터'의 활용도 또한, 높아질 예정이다. 전북센터는 14개 기초자치체를 권역별로 순회하는 '찾아가는 청년정책 소통학교'와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

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광역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하반기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추가로 지원하며, 매주 금요일 청년의 궁금증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청년 헬프데스크'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서비스인 '전북 창업정보 온라인', '전북 청년허브 온라인' 플랫폼을 강화, 대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팬데믹 상황에서도 창업자와 청년의 접근성을 최대한 높인다는 계획이다.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스타트업 육성과 투자를 동시에 수행하는 센터 역할 상, 다양한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이전을 통해 센터가 보유하지 못한 역량을 파트너십을 통해 해결해 창업기업이 매출과 고용창출 등 실질적인 성장단계 돌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집중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 주소는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3,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 4층(063-220-8900)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는 15일 전주대학교에서 '2021년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 발대식

전북도, 창업동아리 20팀 대상 교육·시제품 제작 등 지원

전북도가 창업에 관심있는 도내 대학생과 고등학생이 경제혁신을 주도하는 청년 창업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도는 15일 전주대학교에서 '2021년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사업'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전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전주대학교 관계자와 4명의 멘토단, 올해 선정된 창업동아리 20팀중 6팀(고등부 1팀, 대학부 5팀)이 행사현장에 참석했다. 나머지 창업동아리 14팀은 비대면

(ZOOM)으로 함께했다. '창업꿈나무 사업화 지원'은 전북도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우수 아이디어를 보유한 20팀의 도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창업동아리를 발굴, 미래의 청년창업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지원, 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등의 체계적 창업 전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전주대학교가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5월 6일부터 7월 13일까지 '찾아가는 창업꿈나무 설명회&아이디어톤'을 진행, 온라인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창업

동아리 20팀을 선발했다. 선발된 창업동아리에게는 300만원의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해 6개월 동안 시제품 제작, 지적권 취득, 전시회 견학 및 참가 등 다양한 창업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한다. 또한, 창업경연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아이템 발굴에 필요한 교육 비용도 추가로 지원받는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소비자 반응 조사를 위한 모의 클라우드 펀딩, 시제품 전시회 등의 프로그램을 거쳐 우수 동아리를 선발, 실전 클라우드 펀딩 기회를 제공하는 등 후속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추진

현재까지 15개소 운영 중... 하반기 전주 2 · 남원 2개소 신설

전북도가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나눔터' 4개소를 하반기에 신규 개소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들이 자유롭게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소통하는 공간이다. 주 2회 이상 아동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되는 동시에, 놀이 활동을 위한 교구와 도서가 비치돼 이용 및 대여서비스도 가능하다. 도내 공동육아나눔터는 지난 2018년

이전까지 전주, 익산, 완주, 무주 4개소, 2019년도에 군산, 김제, 남원, 장수, 익산, 정읍, 고창 등 7개소, 2020년도에 전주 2, 완주, 남원 등 4개소가 추가 개소해 현재까지 15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히 자녀를 맡기는 곳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협력해서 돌봄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부모들이 자유롭게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부모 자

녀양육 프로그램과 나눔활동 등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접목해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지키며 자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리모델링과 기자재 구입비에 도비를 지원, 하반기에 전주, 남원 지역 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 유휴 공간을 공동체 돌봄공간으로 리모델링해 올해 총 4개소(전주 2개소, 남원 2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를 신규 개소할 계획이다. 심미애 도 여성청소년과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도민들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여름방학기간 찾아가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 추진

청소년 다중이용시설 감시순찰활동 · 계도활동 중점

전북도가 여름방학기간을 맞아 청소년 일탈행위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을 실시한다. 도는 '전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주관 찾아가는 감시순찰을 8월말까지 최소 5회 이상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은 도내 14개 시·군 내 음식점

과 편의점 등과 같은 청소년 다중이용시설이며,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에 관한 감시순찰활동과 계도활동 중심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될 예정으로 '청소년 고용 및 고용불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

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김영석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음에도 많은 유해환경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현실"이라며 "앞으로도 양성한 감시단 활동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